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 전남으로 와야”

김영록 지사 “대통령 공약사업, 공모 통해 대상지 선정 잘못” 반발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등 해결 노력

김영록 전남지사가 보건복지부의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 공모 방침과 관련(광주일보 5월 29일자 3면)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이 먼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공모 방식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나주시를 비롯한 전남 중부권 7개 시장·군수와 간담회에서 “전남이 먼저 제안하고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전남지역으로 와야지, 공모 형태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 추진 방식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은 총 3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 첨단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업단지 일원 33만㎡의 부지에 연구센터, 연구병원(500병상), 예방·재활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

전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한데 이어 100대 국정과제,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 2017년 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중심으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근거가 될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전남대병원 등 전국적으로 14개 권역별 심뇌혈관센터가 있지만 이들 총괄할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없어 그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이 그 유지를 위해 민주당과 관련법 개정과 예산 요청 등 수년간 꾸준히 노력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외에도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힘을 모아야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중부권 시장·군수들께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관련된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함께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부권 시장·군수 간담회는 서남해안권과 동부권 간담회에 이어 이뤄진 권역별 간담회다. 서로 만나 소통하고 현안을 적극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최고경영자 포럼 개최

이금룡 코글로라닷컴 회장 강연

광주시는 지난 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명품강소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및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금룡 코글로라닷컴 회장의 ‘초경쟁시대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의 초대 강연으로 이뤄졌다. 이 회장은 강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차산업, 소프트와 플랫폼을 이룬 제조업의 약진,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에 따른 사물인터넷(IOT)의 확산 등 전방위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나 도시, 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품강소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은 기업 간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 운영에 보탬을 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초청 정철실에서 김중현 롯데슈퍼 대표와 전남산 농수축산물 구매 약정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슈퍼, 전남 우수 농수축산물 1000억 어치 구매

전남도-롯데슈퍼 업무협약체결 道,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전남도가 우수한 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생산·가공하면 롯데슈퍼가 전남산 농수축산물 1000억원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는 롯데슈퍼의 농수축산 전용농장 330만㎡(100만 평) 조성 및 상품 공급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공·유통시설이 미흡해 품질이 우수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제대로 부가가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전남이 전국 최대 유통업체와 손을 잡은 것이다. 6일 전남도는 “5일 초청 정철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강중현 롯데슈퍼 대표이사, 정인수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의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봉선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

장, 김양길 전남축산단체협의회장, 조영주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장, 홍재희 선도임업인협의회 수석부회장 등 농수축산물 주요 생산단체 대표들도 함께 했다. 롯데슈퍼는 전국에 456개 직영점이 있으며, 총 매출액 기준 슈퍼마켓 업계 1위 업체다. 전남도와 롯데슈퍼는 농어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우수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홍보·마케팅, 청년 농부·어부 육성과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롯데슈퍼 점포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에 협력하고, 계절 농산물 수시 특판전 개최, 온라인 쇼핑몰 ‘롯데프레시’ 내 남도장터와 남도미향 브랜드 입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강중현 대표이사는 “농수축산물 소비 확대 상생협력을 통해 전남지역 명품과 특색 있는 상품을 판매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생산자의 소득도 높여 전남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수축산물 소비 확대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농도 1번지 전남과 국내 슈퍼마켓 업계 1위 롯데슈퍼가 협약을 맺은 것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뜻깊은 일”이라며 “이는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 가격에 판매하길 바라는 농어민의 한결같은 희망을 실현하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 두 기관 간 상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해지도록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수 농수축산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활성화 및 직거래 장터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어·귀촌 1번지 전남으로 오세요

전남도·전남어촌특화센터

박람회 참석 정책 홍보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7일부터 3일간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귀어·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어·귀촌 정책 홍보에 나선다. 귀어·귀촌박람회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어인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최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청년 어촌! 활력 바다!’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업종별 귀어·귀촌 성공인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어·귀촌 성공사례 버스킹’, 어촌 살림을 책임지는 어촌계장으로부터 직접 어촌생활 노하우를 듣는 ‘어촌계장·귀어인 토크쇼’, 재미있고 쉽게 경제에 도전하고, 저렴하게 건강한 수산물물을 맛볼 수 있는 ‘수산물 경매쇼’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정책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귀어·귀촌하는 사람에게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청년어업인 영여정착 지원,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오는 8월 1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과 도내 우수 어촌계가 직접 만나 상담하는 ‘귀어·귀촌 스몰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전남도로 귀어난 가구는 300가구(가구원 418명)로 전국 31%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 “전남 해양수산부의 경쟁력과 지원 시책을 예비 귀어인들에게 알려 전남을 귀어·귀촌 일번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여수시, 고흥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신안군,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와 함께 참가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귀어·귀촌 상담’, 전남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 홍보·판매’, ‘귀어·귀촌 성공사례 홍보’ 등 전남의 차별화된 귀어·귀촌

전남 문화예술단체 6곳 선정 국비 5억3000만원 받아

‘신나는 예술여행’ 공모 사업

전남도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공모사업에 전남 문화예술단체 6곳이 선정돼 총 5억3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 단위 최고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복지 사업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하는 지역협력특화형,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축제형, 청년예술가의 창의적 공연, 전시 등 작품 발표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예술형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지역 선정 사업은 유형별로 지역 협력특화형의 경우 사라실 예술촌의 ‘용광로 속 피어난 동백꽃’이, 축제형은 다

다예술협동조합의 O.A.S.I.S 페스티벌이다. 청년예술형은 노라의 ‘이판사판콘서트’, 달들의 놀이터의 ‘예술특공대 우리가 간다’, 문화예술 기획단 씬의 ‘특별한 하루 소소상점’, 우리전통음악연구원의 ‘신나는 국악썩썩 콘서트’다. 최병만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다른 시도보다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된 것은 전남지역 예술단체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이 사업은 도민들은 공연, 체험 등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고, 지역 예술단체는 작품 발표 기회를 갖게 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주 소재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 도 차원 등에서 해당 위원회와 문화향유를 제고 등 문화예술 분야 현안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